



“낙태 반대”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외 44개 단체들이 낙태죄 폐지 반대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에게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낙태죄 폐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한 할머니가 낙태죄 폐지 반대 피켓을 들고 호소하고 있다.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낙태? 남자도 국가도 책임져 주지 않는다”

국민들의 자생적 바람인 낙태죄 폐지 반대 청원 121,764명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외 44개 단체들은 낙태죄 폐지 반대 기자회견을 헌법재판소 앞에서 20일 오전 11시 반에 개최했다.

“태아는 엄연한 생명이며, 자신의 유익을 위해 어느 누구도 살해할 권리는 없다”고 외치며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은 “20일에 받은 서명을 헌법재판소에 전달하려 한다”고 밝혔다. 현재 낙태죄폐지반대 청원만 약 121,764명으로 낙태죄 폐지반대국민연합은 이 청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또한 밝혔다.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송혜정 대표는 “제주도, 여수, 거문도 등 전국 각지에서 낙태죄 폐지 반대를 서명했다”며 “이는 특정 조직에 의해 동원된 것이 아닌, 국민들의 자생적 청원”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자유 발언이 있었다. 용인의 한 시민은 “젠더이데올로기기에 기초한 성해방 이론은 인간을 자유롭게 해준다고 주장 하지만, 결국 해방을 시켜 주지 못 한다”고 못 박았다. 이어 그는 “성해방에 따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주장했던 스웨덴 폴란드 미니스트들은 낙태죄 폐지를 이를 어겼다”며 “도리어 사회에 만연한 낙태로 여성의 가치는 훌대받게 됐다”고 전했다. 또 그는 “낙태죄 폐지로 출산율이 늘어났다 하지만, 흔위정사로 출산율이 늘어나는 통계를 믿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나아가 그는 “여자와 남자가 신뢰 속에서 결혼을 하고, 성을 즐기며 아이가 태어나는 건 축복”이라며 “우리 노년은 손자·손녀들의 재봉진치로 축복이 내릴 것”이라 강조했다. 따라서 그는 “이런 가족 중심의 질서를 세워야 모두가 행복 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반면 그는 “세계인권 선언에 ‘낙태가 권리’라는 말은 없다”며 “서구의 전철을 합부로 쓰아가지

말리”고 힘주어 외쳤다.

두 번째로 바른여성모임 혜음 소속 이 현영 시민이 발언했다. 그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내세우며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국가 인권위원회 죄명을 규탄한”라고 외쳤다. 이어 그는 “최영애 인권 위원장은 모자보건법 14조를 놓고 ‘낙태 허용 규정이 없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이는 잘못된 발언’이라 꾼집었다. 특히 그는 “모자보건법은 강간, 임신이 모(母)의 건강 해칠 경우 등 낙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때문에 그는 “국가인권위는 왜곡된 인권개념으로 낙태죄 폐지 압력을 헌법재판소에 넣지 말라”고 지적했다.

그는 “모자보건법은 강간, 임신이 모(母)의 건강 해칠 경우 등 낙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때문에 그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낙태 허용을 통해 이뤄지는 게 아니”라며 “여성 스스로가 자신의 몸을 지킬 줄 아는 게 진정한 자기결정권”이라 밝혔다. 또 그는 “수술대 위에 누워 태아를 죽이는 것 또한 여성의 자기 해방도 아니”라며 “이는 죄책감의 굴레에 스스로 얹어매는 것”이라 비판했다. 게다가 그는 “내 몸은 내 것”이란 자기결정권을 뛸미로, 강자인 여성의 약자인 태아를 함부로 죽일 수 있다라는 게 인권인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그는 “이미 낙태죄가 있어도 불법 낙태가 시술 되고 있다”며 “이마저도 허용한다면 마지막은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자신의 성적 욕망만 중요하고, 아이를 죽이는 게 옳은가”라고 되풀았다. 끝으로 그는 “8명의 헌법재판관들의 올바른 판결이 수천만 태아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며 “부디 무고한 태아의 생명을 살려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송혜정 낙태반대금지연합 대표가 발언했다. 한 팔의 엄마로서 그는 “거대한 거짓말에 속는 우리 대한민국 딸들이 안타까워” 직접 쓴 편지를 낭독했다.

그는 “내 몸에 대한 진짜 결정권은 남자에게 피임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이를 거부하는 남자는 만나지 않는 게 진정한 자기 결정권”이라 강조했다. 다만 그

는 “모든 성관계는 임신 가능성이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며 “임신이 됐을 때도, 책임 질 수 있는 힘 있는 여자가 되기”를 당부했다. 또 그는 “남성에게도, 국가에게도 출산, 양육에 대한 복지를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자기결정권”이라 힘주어 말했다. 때문에 그는 “낙태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란 주장은 악한 거짓말”이라고 비판하며, “국가가 낙태죄를 명시한 건 죄책감을 불어넣기 위함이 아니”라고 전했다. 다만 그는 “낙태로 인한 산모와 태아의 상처와 아픔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여성의 자기결정권으로 낙태죄 폐지를 외치는 팔’에게 호소했다.

끝으로 강순현 목사가 발언했다. 그는 작년 6월부터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폐지 여부를 심사하기 시작한 후, 지금까지 현재 앞에서 낙태죄 폐지 반대 1인 시위를 매일 벌여왔다. 그는 “성관계는 맘껏 즐겨도 되고, 아이를 맘대로 지우는 낙태”를 반대한다며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는 건 옳지 않다”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한 알의 사과를 먹기 위해서는, 수고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우리가 존재하는 건 부모가 우리를 낳고 키워준 수고의 과정이 있기 때문”이라며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아름답게 자식들을 키우려는 부모의 의무와 수고가 있기에, 아름다운 기쁨이 있는 것”이라 또한 밝혔다. 하여 그는 “태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는 결국 자기 존재를 긍정하는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 그는 “자기 존재 가치에 대한 감사를 알고, 키워준 아빠와 엄마와 함께 기쁨을 누려야 한다”며 “낙태죄 폐지는 태아도 자기 존재도, 키워준 부모의 헌신도 부정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노형구 기자

“南 세속영화 통해서 예수 만나고 싶은 북한 사람들”

한국 VOM, 영화로 예수 알아가는 北주민들 삶 전해

세속적인 영화를 보고 하나님을 믿는 북한주민들 북한 내부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는 북한 주민에 관한 보도는 지금까지 많이 나왔다. 또한 북한 주민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고 탈북 결심을 하거나 물질적으로 더 풍요롭게 살려는 의욕을 품는다는 보도도 많이 나왔다. 그러나 비영리 선교단체 한국 VOM(Voice of the Martyrs Korea)은 그러한 드라마를 보는 북한 주민들이 영적인 삶도 갈망한다고 전한다. 한국 VOM 현숙 폴리 대표는 그런 현상을 가리켜 ‘영화로 예수님 알아가기’라고 일컬었다.

한편 한국 VOM은 이번 달에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는 영화를 북한에 몰래 들여보내는 사역을 시작한다. 공산주의 루마니아 감옥에서 14년 고문당했지만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리처드 월브란트(Richard Wurmbrand) 목사의 이야기이다. 리처드 월브란트는 현재 전 세계 20여 나라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순교자의 소리’(Voice of the Martyrs)의 설립자이다. 루마니아의 유명한 배우들과 미국의 기독교 영화감독과 제작자가 힘을 합쳐 제작한 이 영화는 이미 미국과 호주와 유럽에서 호평을 받았다. 한국 VOM도 어제 3월 18일, 한국어판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개봉했다.

덧붙여 현숙 폴리 대표는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영화를 보고 있습니다”고 덧붙였다. 그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훌륭한 영화이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북한 주민들이 그 영화의 메시지를 특히 더 잘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가령 그는 “인도 영화나 한국 드라마에는 교회 건물, 심사가, 예수님 사진이 가끔 나오는데, 등장인물들이 ‘나는 하나님께 기도해요!’라고 말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북한을 탈출한 주민들은 전에 그런 것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중국 지하교회에서 일하며 그들과 접촉하는 우리 한국VOM 사역자에게 그런 것들을 관하여 자주 묻는다”고 역설했다. “그런 식으로 제자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것이죠”라고 그는 덧붙였다.

2003년에 한국 VOM을 세운 에릭 폴리(Eric Foley)와 현숙 폴리(Hyun Sook Foley) 부부는 인기도 있고 수준도 높은 기독교 영화를 비롯한 기독교 문서들을 오래전부터 북한에 옮길 힘 들여보냈다. 현숙 폴리 목사는 “북한주민은 ‘십계’나 ‘베험’ 같은 옛날 영화도 엄청 좋아한다”며 “몇 해 전에 한국 VOM은 ‘우리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 생애 만화 영화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당한 짐을 특별히 강조한 영화였다”며 “그런데 요즈음 북한 주민들이 그 영화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또 그는 “북한 정권은 목사들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이 고통을 당했다고 주민들에게 거짓으로 가르친다”며 “그러나 이 영화는 진실을 보여주며 공산주의자들에게 고통당하면서도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기독교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그는 “영화를 보고 제자의 길을 걷는 북한 주민들이 그 영화의 메시지를 특히 더 잘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북한 정권은 목사들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이 고통을 당했다고 주민들에게 거짓으로 가르친다”며 “그러나 이 영화는 진실을 보여주며 공산주의자들에게 고통당하면서도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기독교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그는 “영화를 보고 제자의 길을 걷는 북한 주민들이 그 영화의 메시지를 특히 더 잘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좌파 폭정을 막아내고 경제를 살려, 민생을 회복하고 안보를 튼튼히 하자”며 “대한민국을 진정 ‘대한민국’으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끝으로 그는 “교계 지도자들의 말을 잘 새기겠다”며 “또 우리 1000만 크리스천들과 함께 뜻을 모아 달라”고 촉구했다.

노형구 기자

“1천만 크리스천들, 뜻을 모아달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한기총 내방

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0일 오후 4시에 한기총에 방문했다. 전광훈 대표회장은 황교안 대표를 맞이하며, “장로 분들이 대통령이 되기까지 교회가 적극지원했다”며 “그러나 대부분의 장로 대통령들 이 실패한 건, 교회의 감독을 받지 못했다.

기 때문”이라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교계 지도자들의 지도를 잘 받으면 정치에 있어, 끝까지 성공할 것”이라 덧담했다. 다만 그는 “대통령이 되기 전 까지 교회에 적극 투표를 호소하다가, 대통령이 되고 난 후 교회를 외면한 부

분이 없지 않다”고 꼬집으며, “기독교가 대한민국을 지켰던 것만큼, 외면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증경 총회장 이용규 목사도 덧담했다. 그는 “법무부 국장이란 사람이 지난 해, ‘기독교는 혐오집단’이라는 말을 했다”며 “이런 인사가 현 정부에 있는 만큼, 황교안 대표가 기독교적 사명 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그

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목사가 동성애 반대 발언을 해도 처벌당할 수 있다”며 “목사들이 진리의 말씀을 맘껏 선포하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증경 총회장 엄신형 목사도 또한 덧붙였다. 그는 “하나님에 도전하는 세력은 살아남을 수 없다”며 “신앙 원칙을 굳건히 세우고, 하나님에 도전하는 정치 세력을 다윗처럼 막아선다면 큰 축복이 임할 것”이라 당부했다.

이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교계 지도자들의 조언을 되새기며,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교계 지도자의 말씀이자, 국민의 말씀이기도 하다”며 “늘 기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나를 위해, 그리고 자유한국당을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형구 기자

여러분, 기도는 마귀의 진로를 무너뜨리는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보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면

서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영혼이 잘될 같이 복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기도

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

사랑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도 믿음이 없어 하나님께 구하고 응답받는 체험을 경험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무엇보

다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날마다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찬양과 감사로 영광을 돌리고 눈물로 죄를 회개하고 필요를 온전히 구체적으로 구하고 감사로 고백하며 나아가

는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오니 주께서 힘주시고 불들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고전3:1-9)



군대의 특별한 생리 중의 하나가 '직속상관이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군대라는 것은 명령과 복종 관계가 철칙으로 지켜져야 제대로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기 직속상관의 명령에 절대복종하는 것부터 철저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처럼 직속상관과 직속부하들끼리만 너무 잘 통해서, 군 최고 통수권자의 권위까지 무시하거나 거역할 때 일어나게 됩니다.

쿠데타라는 것이 그렇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직속부하들이 군부 고위층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면, 마치 자기가 그들을 제일 잘 이해해 주는 좋은 상관인 체 하면서 평소에 비위를 맞추어 줍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부하들을 국가의 충복이 아니라 자신의 사병(私兵)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러면 그런 부하들은 그 직속상관의 명령만 떨어지면 참모총장이든지 대통령이든지 가리지 않고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총구를 겨누게 되고, 그 상관은 나라를 통째로 삼킨 후 직속부하들과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물론 군에서 선임과 후임이, 장교와 부사관이 서로 존중하고 아끼면서 상하관계를 긴밀하게 가지는 것은 지극히 옳은 일입니다.

하지만 제일 높은 사람들은 따돌려 놓고 그 밑에서 저희들끼리만 서로 좋아하고 친하게 지내게 되면, 그런 군대란 국가안보라는 본래의 책임을 저버리게 될 뿐 아니라 아예 국가의 존속 자체를 위태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와 똑같은 일이 바로 '하나님의 밭'으로 본문에서 비유되고 있는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밭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완전히 저 뒤로 제쳐 놓고, 그 밑에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자들이 저희들끼리만 서로 짹짜꿍을 맞추면서 교회를 운영하려는 경우입니다.

물론 그런 밭이 농사가 잘 될 리가 없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교회가 그린 부실한 밭, 그처럼 사람들끼리 해먹는 밭이 되지 않고, 진정 하나님의 구령 사업이 제대로 일구어지고 열매가 자라는 기름진 밭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저는 교역자와 교인들이 이 '하나님의 밭'인 교회를 어떤 자세로 섬기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할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1. 교인들은 교역자를 주인처럼 여기고 오직 '하나님께서 교회를 맡기신 청지기'로 모실 줄 알아야 합니다.

1절부터 4절에 "1형제들이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합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합과 같이 하노라 2 내가 너희를 젓으로 멎이고 밤으로 아니 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을 이기나와 지금도 못하리라 3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4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아 아니리요"라고 기록했습니다.

여기 "신령한 자"란 바로 앞의 2장에 나오는 '성령 충만한 자' 즉 구원의 확신을 얻은 후 계속 잘 성화되고 있는 신자 를 뜻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처럼 성숙한 신자를 "대합과 같이" 고린도교회 교인들에게 "말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

다. 왜냐하면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육신에 속한 자", 즉 교회 출석은 하고 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세속적인 생각과 습관을 따라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교회 안에서도 바깥 사회에서 하던 버릇 그대로 "시기와 분쟁"을 일삼았습니다.

아린아이들이 툭하면 쉽게 서로 틀어지고 싸우듯이 교회 안에서도 편장을 짓고 폐싸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교회 교인들이 그처럼 한 교회 안에서 서로 갈리지면서 각기 내세운 슬로건들이 정말 어찌구나없게도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라", 혹은 1장에 나오듯이 "나는 계바(베드로)에게라"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교회는 바울이 일 년 반 동안

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를 설립한 후 고린도전서를 쓸 때까지는 별써 5년 정도의 세월이 경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도 그들은 여전히 "밥"을 "감당하지 못하는", 즉 더 높고 깊은 단계의 신앙 교육을 받을 수도 줄 수도 없는 것인가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 교인들을 두고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라고 정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상교회 안에는 정말 그런 교인들이 있습니다.

인간사회에서는 젖을 빨고 몇 년이 지나도록 몸무게도 자기도 조금도 자라지 않는 아이는 거의 없겠지만, 신앙 세계에서는 그와 같은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도 몇 년 혹은 몇 십 년 동안이나 교회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받아먹고 살았으면 어느 정도는 좀 자란 것이 표가 나야 할 터인데, 정말 이상하게도 발육 속도가 완전 '제로'인 교인이 있습니다.

그래도 예배에 참석하는 등 기본적인 신앙생활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 같기도 한데, 다른 한편으로는 중생을 받았다면 분명히 나타나 할 성장의 표가 전혀 보이지 않는, 정말 알 수 없는 교인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교회 교인들에게 있어서 그런 현상이 생긴 원인은 어려나하게도 바로 사도들에게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잘못해서 그랬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이 그 훌륭한 사도들을 잘못 대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본문에 "사람을 따라 행함"이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식대로 행동함"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교회 안에서도 바깥 사회에서 하던 버릇 그대로 "시기와 분쟁"을 일삼았습니다.

아린아이들이 툭하면 쉽게 서로 틀어지고 싸우듯이 교회 안에서도 편장을 짓고 폐싸움을 했던 것입니다.

중이 뭉가를 좀 깨달았다고 점잖게 품을 잡으면 그것을 두고 '득도하신 스님'이니 하고 높이면서 그 도통한 것을 좀 얻어겠다고 몰려 듭니다.

무슨 수녀가 평생 빙자와 병자를 도

우는 일만 하고 살았다면 그런 사람을

'성녀'라고 추앙하는 그 자체가 곧 자

신의 종교 행위가 되는 것으로 칭찬하는

것입니다.

중이나 수녀를 그처럼 거룩하게 여기고

존경스럽게 받들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보고서는 그보다 훨씬 더 감탄할

줄 모르는 것은 그야말로 오로지 '육의

사람'에 속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참된 신앙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것이 어떤 한 개인의

머물면서 전도하여 세운 교회였고, 나중에 아볼로 역시 거기서 일정 기간 동안 머물면서 사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고린도교회 교인들은 특정 목회자에 대한 편애심이 극단적으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앙으로서의 자신을 말할 때 '나는 바울 사도가 가르치는 대로만 사는 신자다.'라든가 '나는 아볼로 사도를 흡모하고 존경하는 신자다.'라는 말로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신자다.'라는 신앙고백을 대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고린도교회 교인들은 어느 특정 목회자가 그들 자신의 신앙생활의 출발점뿐 아니라 또한 자신의 신앙생활이 계속 유지되도록 도와주는 구심점이 되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즉 그들의 신앙생활이란 것은 그들이 편애하던, 그리고 소위 존경한다고 추켜 세우던 한 명의 교역자라는 테두리에서 단 한 발짝도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던 실로 '우물 안의 개구리' 식이었습니다.

어떤 사도나 교사 한 사람을 두고 좋아서 못살겠다는 식으로 떠벌리는 것을

마치 자신의 신앙고백이나 되는 것처럼 칭찬하고 있던 그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라고, 즉 '너희들이 내 눈에는 마치 아직까지 여전히 육에만 속해 있는 사람처럼 보인다'라고 정탄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단 종교일수록 사람이 좀 거룩하게 산다는 것을 지극히 높이고 극찬하기 마련입니다.

중이 뭉가를 좀 깨달았다고 점잖게 품을 잡으면 그것을 두고 '득도하신 스님'이니 하고 높이면서 그 도통한 것을 좀 얻어겠다고 몰려 듭니다.

물론 교인이 목사를 존경해야 함은 두 말할 필요 없는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그것과는 비교도 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강력하고 진실해야 마땅합니다.

목사의 설교에 은혜를 받게 되면, 그런 말씀을 그 목사의 입에 담아 주신, 스스로 '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 감사해야 할 뿐입니다.

전도사의 인품이나 삶이 존경스러우면, 본질적으로 자기와 똑같은 죄인을 그렇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에 모든 영광을

다 드립니다.

교인들이 자기를 사도라고 빙자해 주고

일부 지나친 사람들은 그처럼 자칭 '바울파'라고 정의했습니다.

여기 '사역자'라고 번역된 말은 사실은 그냥 '종' 혹은 '일꾼'이란 뜻인데, 원래는 주인의 식사 테이블 옆에서 시중들던 '웨이터'를 가리키던 말이었습니다.

교인들이 자기를 사도라고 빙자해 주고

일부 지나친 사람들은 그처럼 자칭 '바

울파'라고 정의했습니다.

즉 '교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잘 믿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바울을 위시한 모든 사도들과 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섬기던 사역의 본질이었던 것입니다.

삶을 보면서 '사람이 저만큼 착하게 살 수 있구나!' 하고 감탄하는 데에 있는 것에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하게 선하신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스스로 '인(人)의 장벽'을 치는 일입니다.

'저 사람은 나 같은 범인으로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만큼 거룩하게 살고 있구나!' 하고 친사를 던지게 되면, 그 순간 그 개인의 신앙이란 것은 바로 거기에서 끝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 자체가 이미 자기가 직접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앙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또한 그런 친란이야 말로 마땅히 하나님께만 돌려야 할 영광을 가로채서 사람에게 갖다 바치는 신성 모독일 뿐입니다.

자신의 직속상관만 하늘처럼 모시고 그 상관 위에 있는 최고 사령관을 모르는 병사는 반드시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인은 그 어떤 경우에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 그 옷자락에 손을 대려고 나아가는 길에 교역자를 그 사이의 장벽으로 만들어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즉 자신의 신앙생활이 어떤 특정 목회자를 존경하고 받드는 선에서 정지되지 않도록 극히 조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그런 '종보자'로 만들어 하나님과 영광을 가로채는 악한 농부 같은 목사도 이 지상교회에 있지만, 교인 쪽에서 스스로 목사를 그런 '인(人)'의 장벽으로 만들어 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게 생기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인이 목사를 존경해야 함은 두 말할 필요 없는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그것과는 비교도 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강력하고 진실해야 마땅합니다.

목사의 설교에 은혜를 받게 되면, 그런 말씀을 그 목사의 입에 담아 주신, 스스로 '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 감사해야 할 뿐입니다.

그 종으로서의 사역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가요?

그것은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는" 일입니다.

즉 '교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잘 믿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바울을 위시한 모든 사도들과 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섬기던 사역의 본질이었던 것입니다.

인'이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령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 계시는 신령한 농부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교회라는 밭에서 자신의 신앙생활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모든 교역자들을 이 밭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천히 세우시고 사용하고 계시는 청지기로서 존중하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 교역자는 교인들의 인기를 구하려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5월 이하 8월에 "5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아볼은 무엇이나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6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7그런즉 심은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8심은 이와 물 주는 이는 한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고 기록했습니다.

사도들이 고린도교회 교인들에게 결코 어떤 신앙의 바탕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친란이나 영광을 돌릴 대상도 될 수 없는 존재라면, 과연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그들은 사역자들이니라"고 정의했습니다.

여기 '사역자'라고 번역된 말은 그냥 '종' 혹은 '일꾼'이란 뜻인데, 원래는 주인의 식사 테이블 옆에서 시중들던 '웨이터'를 가리키던 말이었습니다.

교인들이 자기를 사도라고 빙자해 주고 일부 지나친 사람들은 그처럼 자칭 '바울파'라고 정의했습니다.

교인들이 자기를 사도라고 빙자해 주고 일부 지나친 사람들은 그처럼 자칭 '바울파'라고 정의했습니다.

즉 '교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잘 믿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바울을

설교

이것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자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의 사역이란 사람들로 하여금 착한 생활을 하도록 인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무려 3차에 걸쳐 온 소아시아와 그리스를 돌아다니며 전도활동을 할 때 무슨 고아원이나 양로원을 운영하면서 선행을 쌓은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훌륭한 교사로 명성을 떨쳤던 아볼로가 대중을 선도하여 무슨 사회 정의를 구현하겠다고 시도한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혈질의 베드로가 로마제국의 압제에 대하여 의분을 발휘하면서 자기 동포들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무슨 정치 활동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기독교 사회운동을 한다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와 얹눌린 자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러 왔다’라는 말을 전가의 보도처럼 인용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말씀에서 ‘가난한 자와 얹눌린 자’만 강조하고, 바로 그 다음의 말씀 ‘복음 전도’는 다른 말로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기난한 자와 약한 자들을 위해서 친히 이 땅에까지 내려오신 구세주이십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주신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빈자를 ‘부자로 만들어 주고’ 약자를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주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을 결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심령을 회개시키고 그들의 영혼과 육신 전체가 천당영생을 얻게 만드시는 것만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의 내용이요 핵심이었을 뿐입니다.

바로 그런 까닭에 사도 바울도 그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하여 복음을 “심는” 일에만 주력

했습니다.

즉 그저 가는 곳마다 누구를 만나든지 부지런히 전도하고 그 결과 그 복음을 영접하는 ‘좋은 땅’과 같은 심령 속에 ‘신앙의 뿌리’가 일단 내리게 만드는 사역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아볼로가 했던 주된 사역은 ‘물을 주는’ 것 즉 그처럼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교인을 ‘영적으로 양육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볼로는 원래 ‘학식이 많고 성경에 능통한’ 교사였기 때문에, 일단 신자가 된 사람들을 잘 가르쳐서 더 자라나게 하는 사역에 남다른 은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아처럼 ‘심고 물을 주는’ 과정들은 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을과 아볼로는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만 다하면 자기네들의 할 일은 끝난 것입니다. 그 쌔가 제대로 자라든지 못 자라든지 하는 것은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자기네들의 뜻이나 힘이 전혀 미칠 수 없는 영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라는 말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한 신자의 신앙성장 과정은 출발에서부터 완성에 이르기까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훌륭 주장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예수를 믿어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고, 그 중생 받은 심령이 경건생활을 통해 더욱 성화되어 가는 것은 본인 자신의 노력 때문이 아니요 교역자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전능하신 힘에 100퍼센트 달려 있을 뿐인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가지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전도하는 사역자나 양육하는 사역자나 직무는 좀 달라도 똑같은 하나님의 목적만을 공유하고 있는 한 팀’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각자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삶을 받으리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 사역에 대한 상급도 오직 하나님께서 정해서 주시는 대로 받게 될 뿐임을 가리킵니다.

아처럼 좋은 ‘하는 일’도 그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듯이, 그 ‘받는 삶’도 그저 주인이 주시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까닭에 모든 ‘복음의 사역자’들은 곧 ‘동역자’ 즉 같은 주인 밑에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일에 쓰임을 받는 ‘똑같은 일꾼’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 일꾼에 불과한 사람이 어떻게 감히 진짜 주인을 제쳐놓고 스스로 교회의 주인 행세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드는’ 본래의 사명 대신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적, 사회적, 정치적 불만을 들어주고 해결해 주는 일을 두고 목사의 사역의 본질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은 사람으로부터는 인기를 끌고 인정받는 목회가 될지 몰라도 하나님의 인정은 결코 받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당신의 농부에게 시키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교역자들은 ‘심는 사역’이든 ‘물을 주는 사역’이든 각자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부여 받은 달란트와 사명에만 집중하고 충성을 다함으로써 이 교회 안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인의 기분을 맞추어 주고 교인의 심기를 편하게 해 주려 하는 대신에 여러분으로 하여금 오로지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잘 섬기도록 간절히 권면하고 엄히 훈계하는 교역자들을 정말 ‘배나 존경할 자’로 모실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하게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칙만 구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많은 지상교회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밭’이 되지 못하고, 그 밑에 있는 청지기, 즉 ‘집 관리를 맡은 집사’가 제멋대로 자기 사욕을 채우는 ‘강도의 굴랄라’ 바꿔고 있습니다.

청지기가 그 맡은 집안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본래의 책임은 다하지 않고, 교회가 마치 제집인 양 제멋대로 친구를 부르고 파티를 열고 저희들끼리 함께 흥청망청 마셔대는 꽃을 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속부하들로 하여금 최고 통수권자의 명령에만 따르도록 철저히 훈련시키는 대신 그저 자기만 좋아하도록 만드는 목사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반역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처럼 그저 알박한 인기를 끌어 모아서 자기 생계나 유지하려는 목사들이야말로 오히려 ‘양’을 잡아서 자기 배를 불리운 ‘상군’인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의 신앙생활이 잘 자라나는 ‘하나님의 밭’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목사부터 그 어떤 경우에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교역자들은 ‘심는 사역’이든 ‘물을 주는 사역’이든 각자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부여 받은 달란트와 사명에만 집중하고 충성을 다함으로써 이 교회 안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인의 기분을 맞추어 주고 교인의 심기를 편하게 해 주려 하는 대신에 여러분으로 하여금 오로지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잘 섬기도록 간절히 권면하고 엄히 훈계하는 교역자들을 정말 ‘배나 존경할 자’로 모실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의 마지막 9절에 기록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헬라어 원문에 보면 ‘하나님의’라는 말이 각 구절에서 세 번 다 제일 앞에 나옵니다.

굳이 직역하자면 ‘하나님의, 우리는, 동역자들이요,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이니라, 너희는’이라는 순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라는 말은 집안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본래의 책임은 다하지 않고, 교회가 마치 제집인 양 제멋대로 친구를 부르고 파티를 열고 저희들끼리 함께 흥청망청 마셔대는 꽃을 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속부하들로 하여금 최고 통수권자의

명령에만 따르도록 철저히 훈련시키는 대신 그저 자기만 좋아하도록 만드는 목사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반역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그저 알박한 인기를 끌어 모아서 자기 생계나 유지하려는 목사들이야말로 오히려 ‘양’을 잡아서 자기 배를 불리운 ‘상군’인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의 신앙생활이 잘 자라나는 ‘하나님의 밭’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목사부터 그 어떤 경우에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교역자들은 ‘심는 사역’이든 ‘물을 주는 사역’이든 각자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부여 받은 달란트와 사명에만 집중하고 충성을 다함으로써 이 교회 안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저 알박한 인기를 끌어 모아서

자기 생계나 유지하려는 목사들이야말로 오히려 ‘양’을 잡아서 자기 배를 불리운 ‘상군’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교역자들이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만 하는 ‘밭’이 되지 않고 목

사가 자기 마음대로 씨를 뿌리고 제집인

양’ 대로 씨먹고 교인들과 같이 놀기만

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서,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지 못하고 평생 주일마다 그저 목사의 얼굴만 보고 돌아가는 미숙아 신자로 끝나서야 되겠습니까?

하지만 최고 통수권자를 제쳐 놓고 직속

상속관과 직속 부하들끼리만 해 먹는 교

회는 바로 그처럼 ‘경작이 안 되는 밭’,

‘난장판 집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인들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가르치지 않고 그저 자기

만 존경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들로부터 높임 받는 재미에 사는 목사들, 그저 자기의 육신적 불만만 잘 들어주고 도와주겠다는 목사를 하늘처럼 받들면서 진짜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전혀 두려워할 줄 모르는 교인들이, 바로 그처럼 이 지상교회를 영광진창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한 교회 안에서 교인과 목사가 친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적어도 그것이 교회생활의 최고 정점은 결코 아닙니다.

목사가 교인을 아끼고 교인이 목사를 존경하게 되는 것이 교회 안에서 누리게 되는 최고의 사랑 관계는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는 목사와 교인들이 있다면, 이미 그 교회는 명백히 하나님 앞에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는 교회입니다.

목사의 가르침과 모범을 통하여 어찌 하든지 본인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도달하는 교인, 자신의 팬(fan)을 키우지 않고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신실하게 따르는 신자를 만들고 기우는 목사 – 이런 교인과 목사야말로 실로 완벽한 교회의 자체들입니다.

모든 교역자들과 성도들이 이처럼 자신의 위치를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자각하고 각자에게 맡기신 본

연의 사명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됨으로써, 우리 경향교회가 더 많은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하나님의 밭’이 되고 더 성숙한 신자들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집’으로 부흥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 연요한 목사는 송실대, 송의여대 교목실장과 한국기독교대학교교목회장을 역임하였다. 최근 저서로 「사순절의 영성」, 「부활 성령강림」 등이 있다.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삶과 그의 운명에 하나님에 온전히 하나님 되셨다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

기독일보

www.christiandaily.co.kr

사장 김광수 발행인 장세규 편집인 김규진 인쇄인 허요섭

136-075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53 / 전화안내 02-739-8119 / 팩스 02-739-8120

대표메일 corp@cdaily.co.kr

광고 및 구독문의 070-4352-2480

기사제보 press@cdaily.co.kr

대표구독 SC은행 130-20-571787

구독신청 1년 180,000원 / 6개월 90,000원 / 1개월 15,000원

우리은행 1005-301-884992

등록번호: 서울 기50089 등록연월: 1990년 7월 19일

간별: 일간

미주 기독일보 www.christianitydaily.com

1990년 7월 19일 창간된 기독일보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연요한 목사의 ‘아침을 여는 기도’

사랑의 하나님!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오시다니요? 죄를 범한 사람은 다 세례를 받으라고 요한이 외쳤는데, 원죄까지도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십니까? 모든 의를 이루어 주옵소서. 인류 구원에 하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마3:15) 머리까지 물속에 넣었다 올라오십니다. 죽음에까지

낮아진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성육신은 신비.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 하셨습니다. 믿음의 헛살을 가슴에 품어 하시고 희망의 헛살을 마음속에 주시옵소서. 사랑의 헛살 한줄기 비우기로 하옵소서. 저의 몸에 구원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구해주세요야 합니다.

저의 몸과 같은 예수님의 몸. 저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입니다. 성령님께서 저의 몸에 친히 자리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의 삶

서. 하나님이 계실 저의 삶이 되도록 지켜 주옵소서. 저 자신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힘쓰게 하옵소서. 저 없으신 분이 죄인인양 물속으로 들어가시어 인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요단강 물속에서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비둘기 같이 암하십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 귀중한 신앙을 길이 간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주의 은혜 넘치니 할렐루야. 주의 섭리 놀라워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예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참된 사랑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